



박태원 교수의

불교로 보는 인생

18

통일 신라의 붕괴와 해체, 그리고 새로운 국가 고려의 성립 과정을 다룬 '왕건'이 모처럼 역사 드라마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표현력 있는 구성과 역사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나말여초(羅末麗初)에 신종의 인연이 뿌리내려 가는 사상적 사연을 함께 다루어 준다면 더욱 성공적인 작품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드라마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는 민족적 테마가 있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대립과 갈등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지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기묘하게도 영남과 호남, 북한의 분열 지형도는 삼국 대립의 그것과 닮아 있다. 혹 오늘날의 한반도 분열 구조가 삼국 분립의 역사적 인과를 계승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일까. 이 끈질긴 삼국 대립형 분열 문화를 한민족은 어떤 의미로 소화해야 할까? 고대에 삼국이라는 이질적 정체성이 뿌리내리게 되는 지간의 사연도 궁금해 거니와, 이후 한반도의 역사적·정치적 공업(共業: 집단이 공유하는 업)으로 아직까지도 맹위를

영락없이 소모적 부정과 배제, 다름과 공격으로 이어져 생명을 왜곡하고 해치게 되는 법.

차이들을 상생적(相生的)으로 어울리게 하는 보편 도리는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한민족의 탁월한 영성들은 일찍부터 그 해답을 부처님 법에서 확보하고 있다. 그 해법을 원효는 '한마음(一心)'이라 하고, 동시대 도원익의 상은 '화일승(華嚴一乘)'이라 천명한다. '다름'을 고착시키는 분별의 벽이 해체된 경지, 모든 생명과 사물이 서로 서로 지탱해주는 잠입한 상생(相生)의 관계와 그 평화, 무지가 지어낸 허구와 분리와 고착된 분별을 견어 버려 밝고 따뜻한 세계를 만들어 주려는 참된 지혜는 이미 빛나건만, 중생의

지역 갈등 풀자

떨치는 이 분립 양상은 깊은 사색과 해법을 요구한다.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 감정과 갈등은 다량한 집단 아이덴티티를 인위적으로 통합해 버린 것이 국가 형성의 역사사실이다. 한 국가에 지역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한반도의 삼국 대립형 갈등은 팽팽한 균형의 지형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양상이다. 차이는 성숙과 중요의 계기인 동시에, 상호 파괴, 소모적 대립의 토대이기도 하다. 통일성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획일화는 야만의 폭력이며 문화적 질식이지만, 어울리지 못하는 차이를 또한 타자 부정과 싸움으로 삶을 아프게 할린다. 우리는 지역 차이를 어떤 형태로 소화하고 있는가.

차이가 부정과 배타로 이어지는 것은 '다름'을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이가 풍요의 다양성으로 어울릴 수 있어야 하며 차이를 통합시켜 주는 '하나됨'의 도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지면 차이가 해소되거나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 지혜가 없을 때 차이는

'다름의 격리' 소통 '하나됨의 만남'으로

그 질긴 무지의 습벽은 애써 그 빛을 외면한다. 20세기 한반도를 빠져나온 신음으로 가득하게 한 분열과 배제의 행보들은 그 외면의 애처로운 몸짓이다. 겪을 만큼 겪었다. 이제는 '다름의 격리'를 소통시키는 '하나됨의 만남'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호남을 팔아 '다름'이 제공하는 배타적 기록권을 누리며 국민들을 농락한다면, 그들을 누구보다도 호남인들이 호되게 때려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남이가' 하며 영남 지역정서를 왜곡시켜 병당적 야심을 채우려 한다면, 우선 영남인들이 매섭게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한다. '다름'을 부추켜 사심을 채우려는 소인배의 발호를 '하나됨'의 보편 지혜로 제압하게 될 때, 한민족은 비로소 문화적 단계로 올라서게 된다. 그렇다면 저 질긴 삼국 분립의 지형도는 한민족에게 그 문화적 도약을 위한 긴장과 자극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선우(善友)란 말인가.

■ 울산대 철학과 교수



◇ '올머니네메를'을 연습하며 금강권 결연을 한 천진동지들.

생활속의 진언

- ▲올 비아라 도비아 흠 : 향을 사를 때
- ▲올 살바못자 모지 시디아 시비하 : 참회할 때
- ▲올 아모카 살바다라 사디아 시비하 : 큰 소인 성취를 발원할 때
- ▲올 아이나 시비하 : 부모님의 깊은 큰 은혜를 보답하고자 할 때
- ▲올 이리아 승하 시비하 :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 ▲올 발다나야 사비하 : 공양하기 전
- ▲올 히로다야 사비하 : 화장실에 들어갈 때
- ▲올 시만다 비리소제 흠 : 손과 얼굴을 씻을 때
- ▲올 치릴 : 몸을 보호하고 싶을 때
- ▲다나미 미아미미러 바나구지러 시리미저 군너러 수노비 인나리 의병 모에 사비하 : 모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비하 : 거짓말 또는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했을 때

삼세 알고 참회

자연히 업장 소멸

침몰자의 길 주력③-진언의 공덕

기억력도 좋아져

주력 수행을 하면 어떤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 **〈현우경〉**에는 '진언의 총지력(總持力: 모두 기억하는 힘)을 얻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도 잊지 않게 된다'고 설해져 있어 진언

수행의 효과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 진언을 늘 간직하고 외우면 기억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항상 보리심(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 온갖 집착을 없앨 수 있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진언을 외우면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다. 진언 속에는 불보살들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항상 진언을 외우면 열불이나 예불 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게 돼 자연히 업장(業障)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언을 외우기 전에 먼저 부처님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이 이제까지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것이 좋다.

20년 이상 진언 수행을 해오고 있는 진각종 종학연구소장 혜정 대정사는 "진언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등 삼세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긴다"며 "삼세를 알고나면 자연히 참회를 할 수 있어 업장소멸이 되기 때문에 발원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공덕의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또 혜정 대정사는 "일상 생활속에서 불자들이 '올머니네메를' 등 여러 가지 진언들을 수시로 외우며 수행한다면 탐진치를 없애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큰 공덕과 영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짧은 진언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온 마음을 집중해서 외운다면 반드시 공덕의 효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진언 수행을 불자들에게 권한다.

이외에도 불자들이 진언 수행을 하면 나쁜일이 피해 간다고 한다. 즉 화재, 수해, 관재, 도적, 질병, 횡사, 외침 등 여덟 가지 재난을 비롯한 온갖 악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언도 깨달음을 얻어 성불에 이르기 위한 수행방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구복과 재난방지를 위해서만 진언을 하게 되면 공덕의 효과를 제대로 체험하기 힘들다고 오랫동안 진언수행을 지도해온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제로 아침마다 진언 수행을 한다는 장호수 보살(68)은 "3년전까지만 해도 나이가 들어 정신 집중도 잘 안되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도 안 좋았었다"며 "진언을 꾸준히 하고 다니며 진언 수행을 하니 정신도 맑아져 삶에 활력을 느끼게 된다"고 자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법을 설할 때 어떤 법을 세우든지 그 법은 반드시 다른 법과의 상대적 의존 관계에 의해서 성립됨을 보임으로써, 그 법의 자성은 그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대법들을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해능이 가르친 설법 방식이다. 이러한 설법 방식은 나 가르주님의 중관철학의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자성의 발견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모순율'의 발생 근거를 발견함으로써 '모순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순율'은 서양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앞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는 세계를 모순율에 따라 분별적으로 알며, 분별적으로 아는 세계를 역설 분별적 언어를 통하여 나타낸다. '가'라는 사물(A, 불교에서는 諸法)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가' 아닌 사물(非A)과의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이니, 예컨대 여기 책상 위에 있는 '컵'은 '컵' 아닌 것들과의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컵'일 뿐이다. 만일 다른 어떤 사물도 인식되지 않고 다만 '컵'만이 인식되고 있다면, 이것은 컵이라고 인식할 이유가 없다. 즉 '컵'은 '컵' 아닌 것에 의해서만 '컵'일 수 있을 뿐, 홀로 '컵'일 수 있는 독립자존성(自性)이 없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물은 이처럼 모순적-불교적으로 말하면 '모순율'의 발생 근거를 발견함으로써 '모순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별의식은 이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앞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는 세계를 모순율에 따라 분별적으로 알며, 분별적으로 아는 세계를 역설 분별적 언어를 통하여 나타낸다. '가'라는 사물(A, 불교에서는 諸法)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데 문제는 모순적 상황이 곧 상호 갈등의 상황이란 점이 다. '컵'과 '컵' 아닌 것은 상호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대립적이다. 즉 모순적 상황이란 곧 취사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이며, 취사선택은 욕망과 집착을 불러

오는 갈등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의식 속에서 늘 취사선택하고 욕망하고 집착하는 번뇌에 마주하고 있다. 불교를 배우고 선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러한 번뇌를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모순적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모순율에 따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모순을 소지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별의식에 따라가는 길을 통해서만 결코 분별의식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극복의 길은 모순적 취사선택의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거나 양쪽 모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놓아버리고 분별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음에 때에 어떻게 됩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조주가 "놓아버려라(放下著)"하고 답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가르주나 말하는 회문적절이나 해능

이 두 법을 상대시켜 두 법을 모두 놓아버리게 하는 것도 역시 이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놓아버린다'는 길에도 '놓아 버린다'는 것이 분별의식을 벗어나는 뜻이지만, 도리어 분별의식 속에서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오히려 모순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즉 무분별이라는 방종 내지 아무 생각이 없는 멍청함(昏沈) 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취사선택을 통하여 다른 극단으로 빠져드는 것일 뿐, 분별의식을 극복하는 해탈의 길은 아니다. 즉 무분별 역시 분별이며 멍청함에서 빠져 나오면 여전히 분별의식 속에 있을 뿐이다. 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개별한 길이 바로 직지인심(直指人心)을 통한 견성(見性)의 길이다. 이것은 분별의식을

언어로써 언어에서 해탈하는 길

40 선과 언어 (4)



김태원 부산대 강사·철학

버리지 않으면서도 분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이며, 언어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언어로부터 해탈하는 길이다. 이것은 직접적이지도 단순하며 평범한 길로서, 취사선택의 분별의식 속에서 그 분별의식이 약점이 있으니, '놓아 버린다'는 것이 분별의식을 벗어나는 뜻이지만, 도리어 분별의식 속에서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오히려 모순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즉 무분별이라는 방종 내지 아무 생각이 없는 멍청함(昏沈) 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취사선택을 통하여 다른 극단으로 빠져드는 것일 뿐, 분별의식을 극복하는 해탈의 길은 아니다. 즉 무분별 역시 분별이며 멍청함에서 빠져 나오면 여전히 분별의식 속에 있을 뿐이다.

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개별한 길이 바로 직지인심(直指人心)을 통한 견성(見性)의 길이다. 이것은 분별의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언어로부터 해탈하는 길이다. 이것은 직접적이지도 단순하며 평범한 길로서, 취사선택의 분별의식 속에서 그 분별의식이 약점이 있으니, '놓아 버린다'는 것이 분별의식을 벗어나는 뜻이지만, 도리어 분별의식 속에서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오히려 모순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즉 무분별이라는 방종 내지 아무 생각이 없는 멍청함(昏沈) 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취사선택을 통하여 다른 극단으로 빠져드는 것일 뿐, 분별의식을 극복하는 해탈의 길은 아니다. 즉 무분별 역시 분별이며 멍청함에서 빠져 나오면 여전히 분별의식 속에 있을 뿐이다. 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개별한 길이 바로 직지인심(直指人心)을 통한 견성(見性)의 길이다. 이것은 분별의식을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감정콩

金檀花

“해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작고마하죠? 그런데 이게 향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 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대보다 더 쓰드라니까!”

직접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세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감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명으로 만든 맥중에 감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역죽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감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89일이 소요된다. 콩은 '속퍼레이터'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 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한다.

“선식 감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재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간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현대 웨미리 설악콘도 특별 혜택

가고싶은 설악 품고싶은 동해

설악 콘도 23평 1,584만원을 350만원에

특별가입 내역

평형	총보양가	특별가
23평형	1,584	350
사용인수	객실형태	객실수
30박	방2/거실1	477

특별가입 혜택

- 1 계약과 동시에 전국 22곳 이용 가능
- 2 10년 민거주 전액환불 및 연장가능
- 3 연회비, 임회비 평생면제
- 4 초정약수 스파텔 VIP 초대권 증정
- 5 초정약수 (탄산수) 무료 한정 공급
- 6 양도, 양수, 매매 상속 가능
- 7 신용카드 장기분할 가능 (12~18개월)

■ 온라인 카드결제 안내

국민은행 : 805 - 25 - 0012 - 481
예금주 : (주) 현대웨미리리조트

문의 안내 **02) 545-4955**

주) 현대 웨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렸'거리,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담이 없어지는 통풍병과 뼈가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

잡아주며 몸이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성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회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방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

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정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보다는 꾸준한 몸매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회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